

리사 (1~2썩)

1.

리사 왜 이렇게 무서워해?

은서 아...

리사 김지안. ...가방에 칼 들고 다니는 거 알지?

은서 ...칼?

리사 몰라?

모른다는 듯 고개를 젓는 은서.

리사 너 개네집 가봤어?

고개를 젓는 은서.

리사 너네 친한 거 맞아?

말이 없는 은서. 곰곰히 생각해보다 고개를 끄덕인다.

은서를 바라보던 리사, 이내 입을 연다.

리사 ...니가 개 가방 좀 가져다주라.

은서 가방을...?

리사 니가 친하잖아. 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리반 애들도 위험하고...내가 가져오
자니 깡판칠 게 뻘한데.

고민에 빠진 은서의 표정이 보인다.

은서 가방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데...?

리사 ...그럼 계속 그렇게 같이 다녀도 괜찮겠어? 너 어찌게?

은서 ...

리사 개...얼마나 무서운 앤데. 경고해야지. 다시는 절대 그러지 못하게. ...아무튼 내가
반장이니까. 가져오면 알아서할게.

은서 곁으로 더 가까이 붙는 리사.

리사 너 전에 우리랑 같이 놀고 싶다고 끼고 싶다고. 편지도 썼잖아. 난 전부터 너랑
친해지고 싶었는데?

은서 ...진짜?

리사 근데 초등때부터 나 개네들이랑 친했어서 ... 친해질만한 기회가 없었어서 아쉬
웠어.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?

2.

은서 리사야...토요일에 왜 연락 안 했어? 나 계속 기다렸는데...

리사 은서야. 지금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해?

은서 그게 무슨 소리야...내 생일에 만나자고 했잖아.
리사 그 전에, 우리가 한 약속. ...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랑 친해질 수가 있어.
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칼 있는 거 위험하니까 없애려고 그러는 건데 너 지금 이
 렇게 하자는 거지? 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?
은서 아...
리사 은서야...니가 안 가져오면 나도 진짜 이려고 싶진 않은데... 김지안이랑 똑같이
 대할 수 밖에 없어.

지안 (3~4썩)

3.

지안 진짜...토요일에 기대해. 그동안 사준거 다 갚을게.
은서 됐어. 뭘 갚아~
지안 나 너 좋아.
은서 뭘야~ 나도 너 좋아!

이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은서를 멈춰세우는 지안.

지안 ...은서야. 약속 하나만 해줄래?
은서 뭘...?
지안 나 가방에 이상한 거 안 들었거든. 절대 아니니까 가방만 열지 말아줘.
은서 ...
지안 나 믿지?
은서 ...어. 믿지.

4.

은서 야, 너는 왜 재네들한테 아무말도 안 해? 뭐라고 해야지!
지안 ...이게 제일 나아. 니가 당해보기라도 했어? 나 좀 안다고 착각하지마.

은서 (5~7썩)

5.

리사 왜 이렇게 무서워해?

은서 아...

리사 김지안. ...가방에 칼 들고 다니는 거 알지?

은서 ...칼?

리사 몰라?

모른다는 듯 고개를 젓는 은서.

리사 너 개네집 가봤어?

고개를 젓는 은서.

리사 너네 친한 거 맞아?

말이 없는 은서. 곰곰히 생각해보다 고개를 끄덕인다.

은서를 바라보던 리사, 이내 입을 연다.

리사 ...니가 개 가방 좀 가져다주라.

은서 가방을...?

리사 니가 친하잖아. 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리반 애들도 위험하고...내가 가져오
자니 깽판칠 게 뻔한데.

고민에 빠진 은서의 표정이 보인다.

은서 가방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데...?

6.

은서 리사야...토요일에 왜 연락 안 했어? 나 계속 기다렸는데...

리사 은서야. 지금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해?

은서 그게 무슨 소리야...내 생일에 만나자고 했잖아.

7.

은서 가져왔어.

리사 고생했어. 자리도 여기로 옮겨~

은서 안 열어봐?

언짢은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는 리사. 이내 일어나서 가방을 열려있던 청소도구함에 버리듯 집어넣고 자리로 돌아온다.

리사 고생했다고. 자리 옆으로 옮기라고.

은서 가방에 칼 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!

리사 난 너한테 가져오는 걸 부탁했는데?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고 가.

가방을 가져와 강제로 열려고 하는 은서.

리사 야 미쳤어?

은서 상관하지마!